

# 國家文獻의 蒐集과 保存

金 南 碩\*

## 目 次

- I. 序 論
- II. 國家中心 圖書館으로서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 III. 韓國의 出版現況과 國立中央圖書館의 國家文獻의 現況
- IV. 國家文獻의 蒐集方法
- V. 國家文獻의 保存方法
- VI. 結 論

## I. 序 論

한나라의 문화의 척도는 때때로 출판량을 기준으로 규정 지어지기도 하지만 오늘과 같은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통신수단의 발전은 출판량에 못지 않게 출판된 자료의 통정에 까지 그 기준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조직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나 개발된 상품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 시대이고, 이 속에서 생활하는 개개인은 사회적 변화에의 적응과 자기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정보습득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구조적인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정보의 입수를 통한 지식의 습득이라하겠다.

이를 감당해야 할 기관이 바로 도서관이며, 도서관은 이들의 자기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한 지식의 보급처이다. 이와같은 기능의 발휘는 하나의 도서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국가중심도서관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정보망이 형성되어 질때 그 성과가 기대 되어지는 것이다. 한 국가의 중심도서관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국내의 이

\* 계명대학교 사회대 도서관학과 부교수

용자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정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국가의 국가문헌을 통정해야 하고, 또한 국가간의 모든 정보 통정 기관과도 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간의 협력을 보다 많은 정보봉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도서관이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협력에 의해 타 국가 도서관에 제공되어 질 수 있는 국가문헌에 대한 통정이다. 국가중심도서관은 국가문헌의 통정을 위해 관내의 조직은 물론 자국내 지역의 도서관과도 정보망을 형성하고 이들 도서관과 함께 통정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중심도서관은 국가문헌의 통정을 위해 그의 수집과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며, 국제간의 정보교환에 폭을 넓히므로써 단 하나의 자료라도 더 많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해야 한다.

바로 이 국가문헌이란 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정보 자료를 총망라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문헌의 통정은 인쇄매체인 도서자료, 정기간행물, 미공개자료(학위논문)와 Micro - form, Disk, Film 등등의 시청각자료, 그리고 기타의 정보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정보재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인쇄자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말하는 국가문헌이란 인쇄매체에 한정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료의 객관성때문에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문헌으로 주로 수집하고 있는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외의 시청각적인 자료나 기타자료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목적을 설정하여 보았다.

첫째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UBC의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다.

둘째 문헌통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출판현황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현황을 국가문헌의 통정이란 입장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셋째 결론으로 문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 II. 國家中心圖書館으로서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한국에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단순히 국가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국립’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영어의 National은 한국의 경우 ‘국가적’이라는 뜻이 되겠다. 즉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설립장의 성격의 표시로 National Library가 여러개 있다. 그러나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고유한 몇가지 기능은 의회도서관에 집약되어 있고 사실상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외의 나머지 국립도서관들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공도서관이다. 한국에도 국립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이 있으나 이 도서관은 특수도서관으로서 인정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전제로 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도서관들의 중심체이며<sup>2)</sup> 이들을 지도원조하고 이들이 가진 모든 정보자료를 통정하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그 성격을 규정 하였을때 그 기능은 자연히 일반 공공도서관의 것과는 상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대표적 중앙도서관이라 하여도 모든 국가의 중앙도서관이 공통된 기능을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은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상황이 타국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국의 여건에 맞는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이 분야의 논의를 종합해 보았다.

1) 金南碩, “國立中央圖書館의 國家書誌活動考”, 國立中央圖書館60周年記念論文集,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84), p. 10.

2) Humphreys, K. W. “National Library Function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20, No. 4(1966. 7-8), pp. 156-159.

1963년 영국 Bangor에서 개최되었던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회의에서 Magnussen씨<sup>3)</sup>는 국립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

- 1) 국가문헌의 수집
- 2) 외국문헌의 수집
- 3) 도서박물관[센터]로서의 봉사
- 4) 일반시민의 장서이용
- 5) 정보봉사 및 서지작성활동
- 6) 사서교육센터
- 7) 국가도서관계획의 참여 등 7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K. W. Humphreys씨<sup>4)</sup>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기본적 기능, 요망되는 기능, 부수적인 기능으로 3대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 1) 기본적인 기능
  - (1) 국가문헌의 수집
  - (2) 납본
  - (3) 외국문헌의 수집
  - (4) 국가서지의 출판
  - (5) 국가서지 정보 센터
  - (6) 장서목록의 출판
  - (7) 전시
- 2) 요망되는 기능
  - (1) 도서관 상호대차
  - (2) 필사본 보존

---

3) The Library Association. University and Research Section Conference, Bangor, Apr. 1963. *National Libraries: Proceedings*, London, 1963. p. 11.

4) Humphreys, K. W., *op. cit.*, pp. 158-169.

- (3) 도서관기술에 대한 연구
- (4) 전문직 훈련
- (5) 국가적 도서관계획
- 3) 부수적 기능
  - (1) 국제교환
  - (2) 복본의 배포

한국에서도 1963년 10월 28일 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래의 단순한 공공도서관성격을 띤 국립도서관은 명실공히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 받게 되었다.<sup>5)</sup> 더우기 1987년 10월 30일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기능을 강화하여 국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도서관법 제16조의 규정<sup>6)</sup>에 나타난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 1)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2) 다른 도서관과의 정보자료의 유통
  - 3) 각종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체도의 운영
  - 4)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 정보체제 및 도서관정보협력망의 통할
  - 5)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 6)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 및 사회교육활동의 지도·지원
  - 7)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 8) 사서직원의 연수
  - 9) 기타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등으로 되었다.

이들 기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중앙도서관의 기능은 그 첫째되는 기능이 국가문헌의 수집임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 기능에 수행이 바탕이

5)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3), pp. 259-260.

6) 圖書館法, 第16條.

되어 다음기능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의 규정에 제시된 도서관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1967년 1월에 개정된 직제에 따라 지도협력과가 신설되었고 그 안에 협력계를 두게 되었다<sup>7)</sup> 협력계의 사무분장내용<sup>8)</sup>은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자료의 국내 및 국제교류
- 2) 다른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원조
- 3) 사서직원의 양성과 재교육

으로 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은 UBC의 실현에 의해 더욱 강화 되었다. UBC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기능을 생각해 봄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중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UBC는 1950년 Unesco가 주축하였던 서지사업개발회의의 권고<sup>9)</sup>에 의해서 세계적인 것으로 채택된 이후 1973년 IFLA총회에 UBC의 실현을 그 의제로까지 상정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그후 이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이를 위한 국제적인 통일을 위한 기술적인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졌고 실현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sup>11)</sup> 이로 인해서 국가중심도서관은 이 UBC의 실현을 위한 그 기능수행의 일익을 감당해야 한다. 다음 UBC의 성격을 알아봄으로서 UBC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중심 도서관의 기능에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7) 國立中央圖書館史, *op. cit.*, p. 267.

8) 國立中央圖書館職制, 대통령령 제6023호(1969. 12. 4 제정, 1972. 2. 15개정)

9) 劉永珪, 書誌統整事業論, 도협월보, 제3권 3호(1962, 6월호), pp. 20-21.

10) 李丙洙, 世界書誌統整과 國際標準書誌記述, 도협월보, 제18권 1호 (1977. 1-2월호). p. 17.

11) ISBD에 關한 規則과 UNIMARC에 關한 規定들이 UBC를 實現하기 위한 國際의 統一을 시도한 記述規則이다.

UBC의 내용은 첫째 납본제도를 통한 판권의 보장과 서지통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입수와 제공, 둘째 국내외의 자료생산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이를 통한 현황제시와 자료원에 서지적 관한 서지적 정보제공의 봉사이다.

먼저 UBC와 국가중심도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해 보면,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에 대하여 중요성이 보다 더 구체화될 것이다.

UBC에 소속된 기관의 임무는<sup>1)</sup> 1) 자국에서 출판되는 전체 출판물에 대한 서지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2) 그 서지기록을 국가서지에 최단시일안에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3) 그 기록은 표준적인 형태로 생산배포되어야 하며 4) 자국 이외의 국가서지 작성기관에서 서지기록을 수령하거나, 자국 내에 배포하여야 하며, 5) 가능한 한 자국의 소급적인 국가서지를 작성하여야 한다.<sup>12)</sup>

UBC의 실현에 있어서 국가중심도서관은 자료의 국제간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맨 먼저 자국내의 국가문헌에 대한 통정을 중요시 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국제간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BC의 근본적인 정신은 세계인의 그 누구에게나 제한됨이 없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서관봉사의 확대를 우선과제로 하고 있다. 즉 국가, 인종, 계급, 지역 등을 초월한 정보 서비스망의 형성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국에 중심도서관으로 하여금 자국의 문헌을 먼저 통정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중심도서관끼리의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문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다시 교환된 타국의 정보를 자국의 이용자들에게 이용케 함으로써 봉사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국립도서관은 UBC의 실현을 위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써 다른 공공도서관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자국의 국가문헌의 통정을 위한 기능과

12) 金南碩, 資料目錄學, (增補版, 大邱: 啓明大學校出版部, 1988), p. 76.

UBC에 의해 교환된 외국문헌에 대한 국내 각도서관에 대한 정보 통정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UBC의 취지는 국가의 중심되는 도서관이 바로 자국의 문헌에 대한 통정을 완전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계획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문헌에 대한 수집이나 보존을 위해서 그 어떤 기능 보다는 우선 되어야 하며 이 기능이 중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Ⅲ. 韓國의 出版現況과 國立中央圖書館의 國家文獻의 現況

국가문헌의 수집이나 보존에 앞서 행해져야 할 것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문헌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들의 보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국가문헌의 수집은 새롭게 발행되는 최신자료를 우선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시 해야 할것은 이미 발행된 문헌에 대한 소급적인 통정에 대한 계획과 이의 이행도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 최단시일내에 국가문헌이 완전히 통정되게 해야 한다.

먼저 정부 수립이후 한국의 출판 상황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동서구입예산등 수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문헌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통정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出版現況

출판에 관한 현황은 그 한계를 정부가 수립된이후 오늘까지 한국출판연감에 나타난 단행본의 종수를 근거로 하였다. 이 통계는 문화공보부가 판



권으로 등록된 것을 그 자료로 쓰고 있기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출판물은 본 통계분석에서 빠져 있음을 밝히며 만일 이 미등록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출판물이 분석대상이 될 것이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등록된 자료는 행정적인 영향력이 채 미치지 못했던 정부 수립시기와 1950년대의 6. 25동란 시기의 것이 많은 것으로 앞으로 소급 적용되어야 할 국가문헌의 수집, 보존을 위해 계속 발굴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수립의 시점인 1948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국출판연감<sup>13)</sup>과 문공부의 판권으로 등록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출판의 종수에 따른 수적인 증가 사항을 알아 보았다.

<表 1> 年度別出版物登錄現況

年度	登錄種數	累計		年度	登錄種數	累計	
1948	1,136			1970	2,591	42,887	
1949	1,754	1,890		1971	2,917	45,804	
1950	—	1,890		1972	4,469	50,273	
1951	798	3,688		1973	7,123	57,396	
1952	1,391	5,079		1974	7,018	64,414	93,442(650%)
1953	1,100	6,179		1975	9,225	72,639	
1954	1,558	7,737	14,372(100%)	1976	13,424	87,063	
1955	1,308	9,045			1977	14,375	101,438
1956	1,434	10,479		1978	15,419	116,587	
1957	1,006	11,485		1979	17,151	133,738	
1958	1,281	12,766					227%
1959	1,606	14,372		1980	20,985	154,723	
				1981	23,983	178,706	
1960	1,618	15,990		1982	29,190	207,896	211,789(1,474%)
1961	2,290	16,280		1983	33,321	241,217	
1962	2,966	21,246		1984	33,156	274,373	
1963	3,042	24,288		1985	33,743	308,116	
1964	2,750	27,038	25,924(180%)	1986	37,411	345,527	
1965	3,188	30,226			1987		
1966	3,014	33,240					
1967	2,216	35,456					
1968	2,528	37,984					
1969	2,312	40,296	360%				

資料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63-1987, 참조.

13)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87. (서울:1987), pp. 761-775.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1986년까지 통계에 나타난 총출판 종수는 345,527종이다. 이들을 다시 년도별로 따라 분석해 보면 1948년 연간 1,136종이었던 것이 38년이 지난 1986년에는 37,411종으로 무려 329배로 신장되었고, 1948년에서 1959년까지 12년동안 간행된 문헌의 총계는 14,372종이 였으나 1960년에서 1969년 10년동안에 1.8배가 늘었고, 1970년에서 1979년까지의 10년동안에는 93,442종으로 60년대에 25,924종에 비해 3.6배나 증가 했다. 그리고 1980년부터 1986년사이 6년동안에 211,789종으로 70년대 10년동안에 93,442종에 비해 2.8배로 증가하고 있어 출판물량의 증가 속도가 10년에서, 5년, 3년등으로 배가속도가 단축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헌 통정을 위한 수집과 보존에 따른 계획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 2. 國立中央圖書館의 國內資料의 現況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자료 현황은 한적을 제외한 한국문헌을 대상으로 장서의 양적 증가 상황을 자료와 예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특히 자료에서는 서지통정과 관계가 깊은 납본에 의한 입수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년도별로 따른 국내자료에 의한 현황을 도서관협회의 통계자료<sup>14)</sup>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sup>15)</sup>, 그리고 현지자료에 나타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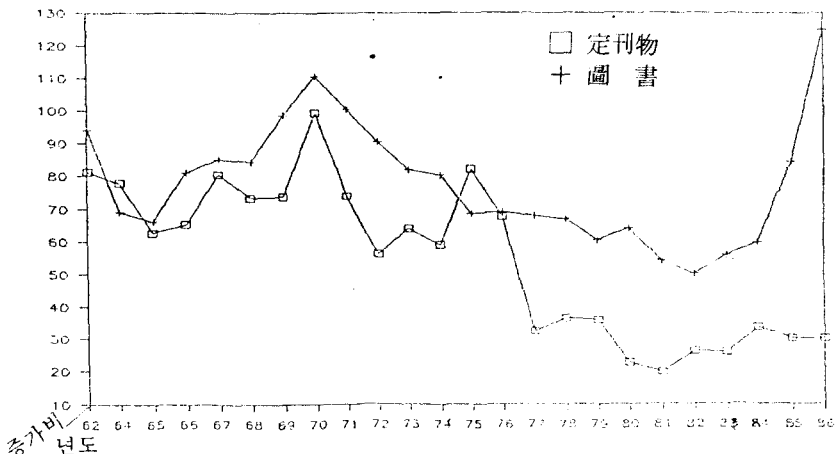
년도별 국내자료의 구입현황과 예산등을 파악하고 이를 매년 발간되는 출판통계와 대비 분석하여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다음에는 해방이후 부터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납본포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 한국도서관협회, 韓國圖書館統計, 1955-1987까지의 자료참조.

15)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1963-1986까지의 자료참조.

圖表 1. 年度別 國內資料收入現況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도서관 자료의 입수상황은 1945-1986년까지 42년 동안 판권으로 등록된 발행 총수 345,527종이지만,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도서는 138,007종<sup>16)</sup>으로 39.9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1969년 이전에는 입수율이 77.3%, 1970-1979년 사이에는 52.3%, 1980-1986년 사이에는 27.4%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도서의 발행총수가 늘어남에 비해서 입수의 비율은 역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납본처도 몇번이나 바뀌었다. 1945년부터 1963년까지는 군정청과 공보부에서 납본을 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인계하였고, 1963년부터 도서관법에 의해 납본처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으나 1963년과 1964년 2년 동안은 출판협회에서 납본을 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인계하였다.<sup>17)</sup> 그러니까 1965년부터 사실상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을 받은 셈이다. 납본처의 변경에 따른 납본실적을 보면 1945-1963년 사이가 81.3%로 가장 높고, 1963-1964년 사이가 77.9%로 약간 떨어졌으며, 1965년 이후에는

16) 國立中央圖書館史……op. cit., p. 279.

17) Ibid.

평균 36.5%로 가장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납본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납본을 받는 기관이 얼마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을 통제할 수 있는 납본처가 되기 위해서는 납본의 불이행에 대한 응분의 구속력을 가진 조치가 요구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판권등록을 함께하여 이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을때 국가문헌의 입수에 대한 실적은 배가될 것이다.

〈表 2〉 定期刊行物の 登録種數와 收入狀況

年 度 別	發 行 種	收 入 種 數	%
1962	355	315	94.8
1963-			
1964	793	547	69.0
1965	669	442	66.1
1966	604	489	81.0
1967	619	527	85.1
1968	663	558	84.2
1969	703	693	98.6
1970	740	818	110.5
1971	852	856	100.4
1972	827	748	90.4
1973	915	748	81.7
1974	979	786	80.3
1975	1,201	821	68.4
1976	1,290	888	68.9
1977	1,337	908	67.9
1978	1,428	956	66.9
1979	1,476	890	60.3
1980	1,215	776	63.9
1981	1,523	826	54.2
1982	1,630	810	50.0
1983	1,765	984	55.8
1984	1,799	1,068	59.4
1985	1,911	1,607	84.1
1986	2,114	2,640	124.9
계	27,378	20,701	75.6

資料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63-1987.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1963-1987, 부록참조.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統計, 1955-1987 참조.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등록종수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종수를 나타내는데 기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으나 입수의 경향을 아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년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70년과 1971년에는 입수 비율이 등록된 종수를 상회하는가 하면 1982년에는 50%에 불과한 실적으로 일반도서관과 마찬가지로 1969년 이전보다 1970년대가 줄어 들었으며, 1980년대는 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두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문헌에 대한 수집, 보존에 책임이 있는 도서관이 매년 그 입수에 관한 실적이 계속 저조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중시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원인이 하루 속히 규명이 되어서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國立中央圖書館의 豫算 分析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은 1986년 209,600,000원으로 도서관 총 예산 8,180,925,000원<sup>18)</sup>의 약 3%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상은 자료의 수집이 주로 남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본에 의존한다는 도서관이 남본되는 비율은 지금까지 분석하여 살펴본 바와같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표 3>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비<sup>19)</sup>의 증가와 시중 도서가격의 연도별 증가현상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도서구입비만의 증가상황을 보면 1972년을 100%로 하였을 때 1981년까지 10년동안에 707% 증가하였는가 하면, 1986년까지 5년사이에 1,551%로

18) 韓國圖書館統計, 1986... *op. cit.*, p. 24.

19) 國立中央圖書館開館60周年紀念論文集.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4) pp. 307-

〈表 3〉 年度別 圖書職員費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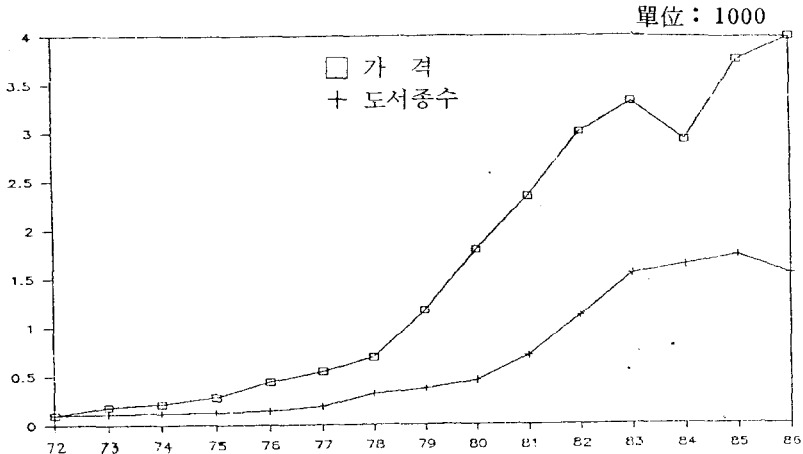
年 度	圖書種數	卷當價格	所 要 金 額	比率(%)	圖 書 購 入	比率(%)
1972	4,469	921	4,115,949	100	13,510,000	100
1973	7,123	1,060	7,550,380	183	15,455,000	114
1974	7,018	1,241	8,709,338	212	15,905,000	118
1975	9,225	1,267	11,688,075	284	16,866,000	125
1976	13,324	1,368	18,227,232	443	19,028,000	141
1977	14,375	1,571	22,583,125	549	25,165,000	186
1978	15,419	1,883	28,525,567	693	42,815,000	317
1979	17,151	2,814	48,262,914	1173	49,782,000	368
1980	20,985	3,514	73,741,290	1792	61,272,000	454
1981	23,983	4,027	96,579,541	2346	95,534,000	707
1982	29,190	4,242	123,823,980	3008	150,600,000	1115
1983	33,320	4,115	137,111,800	3331	208,252,000	1541
1984	33,156	3,635	120,522,060	2928	220,307,000	1631
1985	33,743	4,592	154,947,856	3765	234,568,000	1736
1986	37,411	4,401	164,645,811	4000	209,600,000	1551

資料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63 - 1987. 참조.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60周年記念論文集, 서울 : 1984, pp. 307 - 316 참조.

1981년에 비해 배로 신장하였다. 그러나 도서의 발행 종별증가와 도서의 권당 가격의 연도별 상승은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圖表 2. 圖書의 種別, 價格別, 購入費의 對比表



〈도표 2〉에 의하면 자료의 종별 증가와 도서가격의 상승, 그리고 도서구입비의 증가는 각각 15년동안에 837%(판권등록), 479%(권당가격), 1551%(도서구입비)를 나타내고 있어 마치 도서비의 증가율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상승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서의 종별증가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실제 금액상의 증가는 15년동안에 4,000%가 증가한것에 비해 도서구입비의 증가는 이 증가의 39%에 불과한 1,551%에 머물고 있다. 이를 다시 증가폭을 비교하면 실제 도서가격의 상승폭은 연간 최소 29%에서 최고 662%까지 나타내는데 비해 국립도서구입비는 최소 4%에서 최고 426%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마저 1986년에는 1985년 예산에 비해 185%나 감소되어 있다.

이와같이 도서발행과 가격의 증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의 차이를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어 예산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의 수집기관이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IV. 國家文獻의 蒐集方法

국가문헌의 수집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1) 지금까지 출판된 총 자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이들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2) 통정의 일환으로 소장에 대한 유무의 파악을 위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의 협력을 통한 종합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3) 이미 발행된 자료로서 소재가 불분명한 자료들에 대한 발굴수집과 복간등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집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 자료수집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계획은 범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야 하지만 국가적인 정책하에서 수집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

기 때문에 국립도서관이 모든 계획과 실제적인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문헌의 수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권의 등록과 납본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도서관자체의 정보봉사적인 차원에서 수집방법(집중, 분산, 주제별)과 보존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 1. 版權登錄에 依한 方法

이 방법은 그 목적이 저자들의 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 판권등록처를 두고 발행된 자료가 판권으로 등록되게 함으로서 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판권등록을 국가문헌통정이란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이 한 국가의 문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국가문헌의 통정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판권등록처와의 관계는 동일한 곳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sup>20)</sup> 만일 부처가 다를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저작권법<sup>21)</sup>의 시원은 1710년 4월 10일 영국의 앤여왕법(Queen Anne's Statute)에 두고 있다<sup>22)</sup>. 이 법은 영국의 서적업조합이 저작권보호책을 요구한데서 결과된 것이다. 이후 미국(1790)<sup>23)</sup>, 프랑스(1791)…등으로 각국에서 저작권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의 판권등록은 1946년까지 군정법

20) L. C에서는 圖書館內에 版權登錄局이 있음.

21) 著作權法의 目的은 “著作자의 權利와 이에 인접한 權利를 保護하고 著作物의 公정한 利用을 도모함으로서 文化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著作權法, 第1條), 著作權法: 關係法令 및 條約(大韓辨理士會, 1987). p. 3.

22) 李喜得, 著作權法과 納本制度에 關한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p. 17-18.

23) 柳寅錫, 韓國의 納本制度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pp. 25-26.



령하의 여론국에서 관장하였으며, 이후는 공보처, 문화공보부, 국립중앙도서관등으로 바뀌어 왔다.

판권의 등록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계되어야 한다. 판권등록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출판물의 이용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도서관에서만은 열람할 수 있다는 도서관관리현장을 살려 출판의 자유가 보장받게 해야 한다.

판권을 얻은 도서는 반드시 판권표시가 인쇄 되게하여야 한다. 그래서 판권의 보호는 물론 이 판권등록번호를 통해서 자료의 유통과 열람을 위한 검색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게 함으로 자료자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 번호는 등록에 대한 번호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ISBN과 같은 번호를 활용할 수도 있고, L. C. Card No.와 같은 도서관에서의 정리를 위한 번호나<sup>24)</sup> 별도의 판권등록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ISBN과 도서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번호의 발생과 사용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ISBN은 1966년 11월 독일 베르린에서 열린 ‘도서시장연구 및 도서거래 합리화에 관한 제3차 국제회의’에서 ISBN제도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검토되어 1968년 영국의 제안을 토대로 국제표준기술위원회(ISO)<sup>25)</sup> 문서를 작

24) 美國에서는 議會圖書館에 著作權登錄局을 두고 登錄의 표시로 L. C. Card No. 를 부여하고 있다. (李春熙, “北美諸國의 國立中央圖書館”도협월보, 제15권 2호 (1974). p. 25.

25)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모든 度量衡에 관한 國際的標準化를 위한 機構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모든 事象의 表現을 國際的으로 統一을 기하고자 數千種의 事項에 대하여 標準化 規程 또는 勸告事項을 專門的으로 調査하고 研究하여 審議하여 世界의 모든 會員國의 同意를 얻어서 決定하고 이를 다시 各會員國에 配布하는 일을 하고 있다. (ISO Recommendation for Documentation. 서울: 중앙대학교 문헌연구실. 1973). 참조.

성하고, 표준번호 제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한데서 기인되었다. 이 건의안의 취지는 도서번호의 사용을 국제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각 출판사가 펴낸 각각의 도서를 그 책에 고유한 국제표준번호를 붙여 분류하려는 것이다.

ISBN의 실제에서 활용되는 범위를 유통과정의 입장에서와 열람과정인 도서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유통과정인 출판사와 서점에서는 회계, 출판사 및 서점내의 자료분류, 재고도서의 관리, 주문방식의 효율성을 들 수 있고, 도서관에서는 소장도서의 관리, 주문의 효율성, 자료목록,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검색, 도서관간의 대출 및 대여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보면 ISBN은 출판물의 유통과 도서관 자료의 주문, 열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ISBN의 구성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국가적인 서지를 통정하기 위한 부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서든지 국가문헌의 통정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불가분의 관계일 수 밖에 없다.

모든 출판물이 발행되기전 판권을 등록하게 한다. 이 업무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판권등록처가 되게 함으로써<sup>25)</sup>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자들의 판권에 대한 권익기관이 되게 하고, 저자들로 부터 신뢰를 갖게 하며, 또한 자료가 발행되기전에 출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출판물을 예측하게 하여 보다 정확한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이 가능하게 하여 보다 완전한 통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외에도 L. C. Card No.와 같이 한국에 맞는 판권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발행되는 자료에 판권등록의 표시를 할 수도 있다.

25) "ISBN제도 민간자율에 맡겨야", 출판저널, 통권 제16호(1980. 3. 20) p. 17.  
도서관법(1987. 10. 30).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 (1)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納本制度

납본제도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모든 정보자료를 지정된 장소에 납본케 하여 국가문헌이 한곳에서 수집, 보존케하는 문헌통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미 많은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고 한국에서도 오랜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자료가 발행되었을때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납본기관에 무상으로 납본케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격에 상당하는 보상을 주고 있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국가마다 납본처, 납본권수, 보상, 벌칙등에 있어서는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납본제도에 관한 현황을 보면 1945년 8월 15일 직후는 사회가 혼란한 탓으로 출판 역시 무질서 하였다. 이때모든 출판물은 군정 법령에 의하여 여론국에 납본되었고 1946년부터 여론국에 납본된 도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되기는 하였으나 완전한 이관이 못되고 형식적인 것이었다. 이후 다시 공보처로 업무가 이관 되었다가 1965년 3월 26일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처가 되었다.<sup>27)</sup>

현행 한국의 납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1987. 10. 30), 제17조(자료제공 및 납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할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기 도서, 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27) 國立中央圖書館史, *op. cit.* p. 277.

납본하여야 한다.(3)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납본의 절차,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납본 및 제공자료 등).

국회사무처법 제14조 (제자료의 납본)… 등등이 있다.

이와같이 납본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시행에 있어서는 통제에서 보는 바와같이 아직도 잘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법에서 정한 납본처이고 국가문헌의 책임있는 수집과 보존처란 점에서 법에 따라 납본이 충실이 이행되게 하고 법적인 하자에 의해 구속력이 없어 실적이 부진하다면 이를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납본이 이루어 지게 해야 한다.

한국에서 있어 지금까지 지적된 납본제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납본자료가 단행본과 정간물에 한정되어 있어 특수자료가 도외시되고 있다.

(2) 납본처가 삼원화<sup>28)</sup>

(3) 납본에 대한 보상금등 예산 부족으로 국가문헌 수집이 원만 하지 못하다.

(4)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하다.<sup>29)</sup>

(2) (3)(4)의 문제점때문에 현행 납본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방법으로는

(1)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등록국이 되게 해야 한다.

(2) 납본과 동시에 저작권을 갖도록 한다.

(3) 등록된 자료에 대한 출판 홍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28) 文化公報部,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에 각각 2부씩 납본함.

29) "ISBN제도, 민간자율에 맡겨야", *op. cit.*, p. 17.

더 나아 가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납본처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나 학술도서관에 기증된 책까지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中央集中的 蒐集

중앙의 한 기관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집중해서 수집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한 국가나, 도서관 System이 국가중심으로 편중된 개발도상국의 경우가 많다.<sup>30)</sup> 이 방법은 강력한 국가지원이 따라야 하고 국토가 광범위하고 도서관이 널리 산재해 있는 곳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하나의 중심도서관이 가진 인적자원, 예산, 공간등의 문제로 그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론상으로는 쉽게 가능 할 수 있으나 실제 면에서는 해당국가의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중심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한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문헌을 수집,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술한 통제에서 보는 바와같이 정보생산량이 급증하고, 특히 출판자율화 조치이후에는 정보생산처의 다양화와 그 범위가 광범위 하여 이 수집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자료자체의 수적인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되는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4. 圖書館網을 통한 分擔蒐集

이 방법은 연방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주로 실시되는 방법인데 각 지역

30) 鈴木平八郎, 國立圖書館:近代的機能 展開.(東京:丸善株式會社, 1984). p. 51.

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단위의 대표도서관에 분담해서 국가문헌을 수집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거나 각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단독으로 그 통정을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보다 완벽한 문헌통정의 방법으로 도서관망을 통한 수집과 보존을 생각한 것이다. 각 지역에 대표되는 도서관<sup>31)</sup>을 선정하고 이들 도서관으로 하여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쉽게 입수 할수 없는 자료, 즉 지역단위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해당지역 대표도서관에서 통정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전국의 도서관 정보망에 일익을 감당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센터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특색을 가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중심되는 도서관이면서 자료의 수집방법이나 보존 그리고 열람방법에 있어서까지 지역의 분관이 가지는 기능과 차이가 없었다.

지역의 대표되는 도서관 즉 시, 도 단위에 하나의 도서관으로 하여금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기관으로 정보망을 형성하게 하고 이들 지역 도서관으로 하여금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한 종합 목록의 작성과 수집에 힘쓰게 하며, 지역의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제 자료에 대한 통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수집 정리한 자료의 목록들이 다시 국립에 모아져서 전국적인 국가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이 작성되게 함으로써 국가문헌의 원만한 수집은 물론 완전한 통정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 분산 수집은 반드시 도서관간의 수집을 위한 조정과 상호대차제

31) 道單位の 代表圖書館, 즉 道立中央圖書館 直轄市立中央圖書館이 되고 이들이 地域의 中心圖書館이 되어 地域內 다른 圖書館을 연결한다.

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이때에도 자료에 대한 모든 정보만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집결되어야 한다. 이때 수집되는 자료는 지역의 수요를 위한 것이니까 필요한 예산은 지역단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 형태는 인접한 국가간의 협력수집도 가능한 것으로 인접하고 있으면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 끼리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sup>32)</sup>

### 5. 主題別 集中蒐集

분담수집이나 분담보관의 일환으로 보통 4내지 5이상의 주제별로 중심도서관<sup>33)</sup>을 정하고 해당주제에 따른 자료를 수집 보존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자료의 2부중 1부는 참고봉사용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내고 남은 1부는 해당 주제별 중심도서관으로 보내는 방법과 중심되는 주제별 도서관에서 2부 모두를 수집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sup>34)</sup> 이때에 사용되는 예산은 국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방법에서 어려운 것은 주제별의 책임 범위와 그 경계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참가관과 국립도서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전형적인 예로서는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립농업도서관, 의회도서관등의 수집협력에서 볼 수 있다.

32) 예를 들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北歐 諸國이 資料蒐集에 있어 協力하고 調整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Plan.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인도네시아 諸國의 國立圖書館과 도큐멘테이션센터가 協力해서 組織한 NLDC-SEA 등이 있다. 參加國은 獨立性을 가지고 資料面에서는 自給自足を 지나치게 維持하지 않고 蒐集한 資料를 서로 뒤섞어 利用하는 상태로 두는 것으로 어떤 경우도 圖書館間의 自發的 協力體制에 基礎를 두고 있다.

33) 特殊圖書館, 主題別圖書館이 이의 대상이 된다.

34) 鈴木平八郎, *op. cit.*, p. 52.

## 6. 連續刊行物の 中央集中蒐集

연속간행물은 자료자체의 발행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단행본처럼 분산수집이나 분산보존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국가문헌의 통정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발행되는 전체 자료를 한곳에 집중적으로 수집 보존하게 하고 이에 대한 색인도 함께 작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종합색인이 작성될수 있게 해야 한다.

연속간행물은 그 종류에 따라 이용빈도에 차이가 많고 보존에도 많은 공간이 필요하며, 이의 관리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중심도서관이 이를 맡아 중앙집중적으로 수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앞에 열거한 중앙집중적 수서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수집범위에 있다. 여기에서는 빈번하게 이용되는 조사간행물의 수집에 한정해 있어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자료에 대한 일방적 관심이 적은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이다.<sup>35)</sup>

이상으로 전국적인 자료수집계획으로 몇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중앙집중방법이든 분산수집방법이든 어느 경우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계획의 진행에 깊은 관련을 가져야 한다. 국립도서관은 나라안밖에서 자료탐색을 위해 반드시 들리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국의 모든 정보망과 또한 외국의 정보망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관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전체로서의 자료수집 정책과 그 실시 계획이 있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계획의 주관부서가 되어야 하고 이의 실시에 주무처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앞서 말한 전국적인 자료수집계획이 없는 경우는 국립도서관이

---

35) *Ibid.* p. 53.



중심이 되어서 수집대상 도서관등을 경유하여 자료수집조직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직하고, 수집의 분담을 정하여 수집의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sup>36)</sup>

어떠한 방향을 목표로 하든 이 종류의 수집 계획은 자료이용의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국립도서관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위원회가 참가하는 각종 도서관도 종래의 인습적인 방식이나 체면에 구애받지 않고 협력할 것이 기대된다.

## V. 國家文獻의 保存方法

수집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집된 국가문헌의 보존이다. 발행된 모든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보존되어서 영구히 자료로 쓰여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미 수집방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 1. 國立中央圖書館에 限定하는 方法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은 그 목적이 자료의 상호 협력에 의한 열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영구보존이라는 측면과 열람이라는 측면을 공히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먼저 열람이란 측면에서 보면 국가문헌의 통정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자체의 예산으로 충분한 량의 국내 자료를 확보하여 열람에 임하게 한다. 그리고 국가문헌

---

36) *Ibid.*, p. 54.

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국가예산을 받아 자료로서 수집, 보존, 열람에 임하게 한다. 이때에 몇가지 보존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1) 別度の 書庫에 保存하는 方法<sup>37)</sup>

국가문헌으로 입수되는 모든 자료를 열람용으로 연구 보존용으로 구분하고, 영구보존용은 별도의 서고에 보관하게 한다. 이때의 서고의 시설은 모든 재난에서도 자료가 잘 보존될 수 있는 설비가 되어야 하고, 또한 계속 증가되는 자료의 보존도 생각해서 융통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문헌의 보존이란 입장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료를 집중 보관할 필요성도 고려 되어져야 한다.

### 2) Micro-form의 形態에 의한 保存方法

기록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영구성이 있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료자체에 내구성이 약하여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소멸되거나 자체를 보존하기가 어려운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재료자체가 가진 부피 때문에 공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자료를 마이크로화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서고의 공간문제의 해결과 자료의 영구보존이라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열람이나 자료의 이동등에도 편리한 점이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를 위한 시설이나 인적구성, 예산등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 2. 地域圖書館에 分散保存하는 方法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한 지역의 대표되는 공공도서관이나 주제별 특수

37) 金南碩, op. cit., p. 178.

도서관의 on-line에 의한 정보망을 형성하고 수집방법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담수집된 자료를 분담보존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하여 천재지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헌의 손실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도서관으로 하여금 문헌통정에 책임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자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하게 한다.

지역의 중심도서관은 지역내에서 발간되는 국가문헌을 보존함은 물론 협력관과 상호협력함으로써 정보망에 의한 봉사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협력에 일익을 감당하게 한다.

## VI. 結 論

국가문헌의 수집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제1차적 기능이면서도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 만큼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중심도서관이 감당해야 할 문헌통정에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활동이나 그 인식은 다른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음도 부인 할수 없다.

여기에는 도서관인에게도 책임의 일말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도서관에 대한 위정자들의 무관심이나 무지를 들 수 있고, 관심을 보인 것이 있었다면 외적인 전시적인 행정에 급급하여 참으로 중요한 내적인 기능에 소홀하였다고 하겠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의 통정기관으로 발전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시책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 1) 政策에 對한 配慮이다.

국가가 세계속에 국가이듯이 도서관도 한지역이나 한나라의 도서관일수

없으며, 세계속의 도서관이며, 세계의 정보망속에서 자기것을 고수하면서 다른 국가의 정보를 내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문헌의 통정 없이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수집방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 및 국제문헌들에 관한 통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 법적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립도서관에 많은 기능이 매일 찾아오는 열람자 처리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국가문헌 수집과 보관, 그리고 종합목록작성등의 중심도서관으로서 전국의 도서관들에게 공급해야할 책임도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법적 조치로서 1965년부터 납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어느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느냐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납본제도라는 방법만으로 전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가 수집되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개인이나 기업, 사설단체에서 임의로 납본에 저촉을 받지 않고 발간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판권에 대한 보호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의 판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립도서관은 발행되기전에 자료에 대한 판권번호를 부여하고, 한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료는 이 판권등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판권이 등록된 자료는 국립도서관의 MARC나 Card System, 신간 안내 등을 통해 전국에 홍보 되게 하여 저자들이 의무적이면서, 자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집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판권번호에 의한 문헌의 발행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文獻統整을爲한 機構의 擴張의 必要性을 들 수 있다.

국가문헌의 통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함은 물론 국립중앙도

서관자체의 문헌 통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들에게 서지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도서관의 또 하나의 기능인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도서관의 또 하나의 기능인 정보생산의 기능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각종의 서지 발간이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이거나 전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작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 확보와 기구의 확장이 따라야 할 것이다.

### 3) 預算의 確保이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고 인적 자원이 확보된다고 하여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병행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납본제도만 해도 예산이 따라야 한다. 신간으로 발행되는 자료는 법에 의해서 거의 무상으로 납본되고 있으나 이미 지나간 자료들은 이를 발굴하고 수집해야 하며, 또 수집된 자료들을 책임 있게 보관을 위한 배려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의 무상으로 납본하는 방법도 보상적인 차원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나타난 납본제도는 저자나 단체가 거의 무상으로 6책을 납본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수집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다. 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는 저술에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경비가 들고, 발행자는 출판에 대한 경비가 든다. 그러나 아무런 판권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기관에 의무적

으로 기증이나 반액으로 납본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엄연한 침해이다. 그러므로 납본에 의한 경우 일지라도 반드시 이에 상당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의 서지 통정기관에 납본되는 자료까지도 국가적인 보상이 있어야만 국가문헌의 원만한 수집에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4) 國家文獻의 蒐集 保管을 위한 特別委員會를 構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 도서관이 국가문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중심도서관이라 점에서 어떤 방법의 수집, 보존이든지 이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불가피 하다. 특별위원회는 수집, 보존의 방법에 따라 참가관의 책임자가 될수 있지만 이 관계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국가문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정책과 방향, 그리고 도서관간의 자료의 조정, 각 관의 임무의 조정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이 일관성있게 이루어 지게 한다.

#### 5) 資料의 範圍를 擴大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되고 있는 것은 인쇄매체 그것도 단행본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정보수록재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인쇄매체보다는 더 많은 량의 정보가 시청각적인 자료에 의해 수록되고 또한 전달되고 있다.

선진국의 도서관에서는 서고의 공간 문제와 원거리 이용자의 자료 요청시 우송의 경제성 때문에 책자자료가 Micro자료로 변환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비도서자료인 정간물, 미공자료, Micro-form자료, Disk, Film, Tape자료 등의 정보재가 총 망라된 국가문헌의 통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6) 情報資料의 發行에 대한 書誌 作成이 先行되어야 한다.

수집이나 보존에 선행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 생산된 정보자료의 정확한 서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정보자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국가문헌의 수집이 완벽할 수 없으며, 보존을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울수가 없을 것이다.

서지의 발행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판권으로 등록된 자료의 홍보를 위한 판권등록 속보를 발행해서 협력관이나 자료유통기관, 그리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료의 발행을 미리 알게 하고, 둘째는 납본 속보를 발행하여 빠른시간에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자료를 열람케 하고, 셋째는 보다 완벽한 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소급서지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지 않은 많은 자료를 파악하여 자료의 발굴과 수집에 만전을 기하게 한다.

따라서 수집과 보존을 위한 계획과 실시가 이 서지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

##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Literature

Kim, Nam-Se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its meaning to indicate the direction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literatur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is, However, a representative library of our country and collect every kind of literature and to meet the requests of its user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can't be performed sufficiently on these actions.

According to studies of this paper, it have suggested the following five methods as a method of collecting national literature.

First, The method by registering copyright endowing the number of copyright like ISBN.

Second, The method appli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present legal deposit system.

Thirdly, The method that the central one institution secure national budget collect literature of nation i.e., central intensive collection one.

Fouthly, Method of collecting literature by partial charge through local library networks.

Firthly, Method by subject intensive Collecting.

As the preserving method of national literature, this research has



indicated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to keep the literatures forever, the method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keeps records as a limited volume.

Second, The method of dispersing records as the local libraries.

To put these methods into practice, it must be preceded that not only national helps, budget secures are needed but special committee must be organized to keep and preserve national literatures and material range also be extended and bibliographies for information data issuing must be worked out.